

건축문화 사랑상

Vol.067 10, JUNE 2015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상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2015. 5. 29 ~ 5. 30
 건축문화사랑 제1회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워크숍 개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외 회원일동



인터뷰_ 사람&issue
 제7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으로 추대
 광주/(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안길전 건축사



광주건축사회, 건축공학기술 및 건축구조
 소프트웨어 업체 (주)마이더스아이티와 협약체결



전국 시·도 회장단,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토부 항의 방문
 전남 담양군 건축물 디자인 및 색상관련 협조 요구에 논란

시론 02
 건축물 높이의 도로사선제한 斷想 _ 이기수

워크숍 03
 "건축문화사랑 신문" 과 "젊음" 의 만남, 2015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 & 학생기자 워크숍

광주하계 U대회 04 ~ 05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빛의 도시 광주의 7월을 달구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장 운영 현황

설계경기 06
 적성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설계공모

작품소개 07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사람 & issue 08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안길전 건축사와의 만남

NEWS 09 ~ 11
 광주 강성철 건축사(디자인그룹현대 건축사사무소), '건축이 보일 때' 책 펴내...
 광주건축사회, 설계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 (주)마이더스아이티와 협약체결
 전북 건축인 한마음으로 엮어낸 '전북 건축인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2014년 전라남도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주거부문 우수작 화수목마을 J씨 주택
 설계자 : 건축사사무소 프로세스 정재성 건축사



비주거부문 가작 왕지동 근린생활시설
 설계자 : 건축사사무소 아키펠름 손경식 건축사



건축물 높이의 도로사선제한 斷想



이 기 수 건축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중
광주건축사회 법제위원장
sijoonglee@naver.com

선진적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개발논리와 대형자본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 건축 문화를 이끌어 갈 건축사를 육성하고 보호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발업자에게 예측될 수밖에 없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창의성과 예술성을 말살하거나 저해하고 급기야는 활동기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건축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일본인은 6차례나 수상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선 아직 단 한 차례도 수상하지 못했다. 건설산업 측면에서는 인정받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축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53년만에 폐지된 도로 폭에 의한 사선제한

지난 5월 18일, 공교롭게도 광주 민주화운동 35주년이 되는 그날, 흔히 '도로사선제한'이라 칭했던 건축법 제 60조 제3항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사실,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당시만 해도 뭔가 후속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1962년 1월 20일, 5.16 군사정권에 의해 건축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반세기를 넘어 철옹성처럼 명맥을 이어온 이 조항이 폐지되는 걸 보면서, 수십년 공직생활을 했던 필자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완화 의지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폐지해도 될 만큼 사회적 합의와 도시적 역량이 형성되었는지 그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과연 어떠한 논리로 폐지를 결정했는지는 궁금하기만 했다. 발표를 살펴보면, 도로 폭에 의한 사선제한의 규제로 대각선과 계단 형태의 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로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경제적 손실이 따르며, 건축사의 창의성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점을 폐지의 직접적인 이유로 들고 있다.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발견해내는데 50여년이 넘게 걸린 셈이니, 늦었음을 탄식해야할지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해야할지 모를 일이다.

전형적인 일본 건축법의 잔재인 이 조항은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도로 폭의 1.5배를 초과 할 수 없도록 한 가장 직접적이고 원시적인 높이제한 수단이자 규제였다. 취지는 도로를 중심으로 개방감을 확보함으로써 지나친 과밀과 폐쇄성을 방지하고, 일조·채광·통풍 등에 지장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로망과 간단치 않은 산정방식으로 인해 혼란과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대지에 인접한 도로·공원·하천 등의 폭에 의해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가 제한되다보니 다양한 이해관계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이 대안일 수 있을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통치권자들은 규제완화 혹은 규제개혁을 외쳐댔다. 특히,故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거의 혁명적인 규제개혁을 단행했었다. 들은 후문으로는 당시 이 조항도 폐지 대상으로 분류되었다가, 이 조항이 없어지면 도시의 경관이 망가질 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의해 존치되었고, 대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제도'라는 조항을 신설(1999.2.8)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한다.

건축법에 명시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제도'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단위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하는 제도로써, 도로의 폭뿐만 아니라 간설시설의 수용능력과 도시의 미관 및 장래의 발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정

해지지 아니한 곳에서는 기존처럼 도로사선제한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즉, 도로사선제한의 폐단을 완화하고 계획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직된 지방 건축행정은 인력과 예산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도 태반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되어 버렸다. 대안이나 후속조치도 없이 말이다. 이제 와서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도시공간속에서 건축물의 키를 일률적으로 재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도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가로구역별로 발생할 집단이기주의에 대처할 방안도 마련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책도 없는 도로사선제한의 폐지가 어떻게 도시공간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불리 예측할 수가 없다. 솔직히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부정적인 변화가 더 크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규제가 느슨해진 틈을 노려 사리사욕을 채웠던 개발론자들을 무수히 보았기 때문이다. 막대한 자본력 앞에서는 규제도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비행장 활주로의 방향마저 바꿔버리는 그들의 힘을 우리는 보지 않았던가?

건축물의 높이는 용적률과 건축사의 창의적 사고에 의해 결정되어야

현 시점에서는 최소한의 규제와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일지도 모른다.

최소한의 규제는 건축법으로 가능하다. 건축법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규제중심의 법률이기 때문이다. 건축법의 규제는 크게 집단적 규제와 개체적 규제로 나뉘고,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대표적인 집단적 규제 수단 중 하나다. 높이를 규제하는 직간접적인 조항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용적률, 고도지구, 미관지구, 일조권확보, 지구단위계획, 비행항공 고도제한 등... 그 중에서 건축물의 층수, 높이 등 입체적 규제는 용적률에 의한 조절이 가장 합리적이다.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을 큰 틀에서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는 융통성과 자율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용적률의 도입과 함께 도로사선제한이 철폐되었어야 옳았다는 일각의 주장도 그러한 맥락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더 이상 건축이 경제발전 혹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머물러서는 곤란하고, 이제는 선진국처럼 도시의 경관과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로 인식되어야 한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높이도 그 과정에서 조율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건축사에게는 그러한 시민의식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할 책임이 있다. 경제성과 예술성을 감안하여 건축물을 창조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

마이다스 기술콘서트 2015

설계와 구조가 연결되는 새로운 설계환경
MIDAS Space Design Solution

기존의 설계업무 과정에서 경험하셨던 비효율적인 작업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건축사님의 설계업무는 보다 가치있게 되었습니다.

MIDAS Space Design Solution은 건축사님께 최고의 기술력을 제공합니다. 건축사님께서 만들어 내신 설계문화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설계에 대한 열정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응원합니다.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건축사님의 열정에 설계 파트너로서 마이다스아티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4월

- 04.21 (화) 원주
- 04.23 (목) 아산
- 04.28 (화) 창원
- 04.29 (수) 순천

5월

- 05.07 (목) 전주
- 05.12 (화) 대구
- 05.14 (목) 수원
- 05.19 (화) 광주
- 05.21 (목) 대전
- 05.27 (수) 인천
- 05.29 (금) 서울 (강북)

6월

- 06.02 (화) 구미
- 06.04 (목) 청주
- 06.09 (화) 울산
- 06.11 (목) 부산
- 06.16 (화) 서울 (강남)
- 06.18 (목) 일산
- 06.23 (화) 강릉
- 06.25 (목) 제주

행사 참가 신청
행사 관련 문의

www.midasArchi.com/concert

신중환 031.789.4257 / jhshin1@midasit.com

“건축문화사랑 신문” 과 “젊음” 의 만남

2015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 & 학생기자 워크숍

(광주 · 전남 · 전북지역 4~5년제 대학 건축 전공학과 대표 대학생 참석, 건축물 답사, 학생기자 위촉식 등 진행)

- 정명철 대표발행인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이라는 것에 자부심과 학생기자 직분의 활용에 대해 강조!”
- 박용묵 공동발행인 “젊은 대학생들의 제작 참여로 산학과 친구 세대간 소통하는 마당 형성될 것으로 기대!”



▲ 오월어머니집



▲ U대회 국제수영장



▲ 다목적 체육관



▲ 학생기자 워크숍



▲ 학생기자 위촉식

2015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과 학생기자 워크숍이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광주지역과 나주지역 일원에서 개최됐다.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에 대표발행인인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과 공동발행인이 전남건축사회 박용묵 회장 등 20여 명의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그리고 신문발행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함께 했다.

첫째 날인 5월 29일에는 먼저 건축물 답사를 진행했는데 ‘2014 광주건축상 금상’을 수상한 ‘광주 오월어머니집’과 ‘2015 광주하계 U대회 국제수영장’, ‘다목적 체육관’을 둘러봤다.

특히 ‘광주 오월어머니집’은 본지 초대편집인이자 논설위원인 박홍근 건축사((주)포유 건축사무소)가 설계한 작품으로 직접 해설까지 나서 참석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 오는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중 국제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답사했는데 각각 시공사에서 직접 설명을 진행하여 설계를 비롯한 시공에 대한 세밀한 부분까지 전해들을 수 있었다.

건축물 답사에 이어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로 이동한 후 본지 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에 앞서 신문제작 신입 구성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하여 정명철 대표발행인과 박용묵 공동발행인이 광주·전남·전북지역 4~5년제 대학 총 9인의 학생들에게 학생기자 위촉장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발행인을 비롯한 서재형 편집인, 백재봉 전남편집위원, 광주건축사회 정인재, 조휴환 부회장, 광주건축사실험 김선영 부이사장, 광주건축사회 김재성 사무국장, 양동희 차장 그리고 학생기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생기자들에 대한 활용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었는데 정명철 대표발행인은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학생기자 직분의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수학생기자에게는 학교를 통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것이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박용묵 공동발행인은 본지 신문에 대해 세대간의 소통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젊은 대학생들의 제작 참여로 산학과 친구 세대간 소통하는 마당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생기자들은 모두 신문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한편으로는 학생기자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고정지면 코너 마련 및 취재활동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 종료 후 화합의 만찬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날인 30일에는 조찬을 한 후 ‘2015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워크숍’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 많은 학생기자들이 참여했으나 편집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겼고 하반기에는 편집위원과 학생기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2회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이다.

곽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학생기자워크숍참가기

“건축문화사랑 신문 학생기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되다.

강은찬 학생기자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군산대학교 노경민 학생기자의 뒤를 잇는 후임 학생기자로써 처음으로 건축문화사랑 신문 학생기자 워크숍에 참여했다. 오전에 몇몇 일정은 참여하지 못했고 U대회가 열릴 예정인 광주여대 다목적 체육관부터 답사에 동참했다. 다른 학생기자들과 짧은 만남과 소개를 한 뒤, 바로 해설을 들었다. 다목적 체육관에 앞서 국제수영장에서도 시공사에서 직접 해설을 들었는데, 영원히 잊지 못할 건축답사였다. 보통 사람으로서 가볼 수 없는 VIP룸, 선수대기실, 연습실, 기계실 등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친절하고 자세한 시공사의 설명까지 곁들여지니 너무도 좋았다. 특히 체육관 상부의 Cat-Way(보수통로) 견학은 그날의 하이라이트였다.

그쯤 되니 국제수영장 견학에 동참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쉬웠고, 기자의 활동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도 느끼게 되었다. 다목적 체육관을 둘러보고 나서는 나주에 있는 중흥골드스파리조트로 향했다. 그곳에서 발행인, 건축사, 학생기자가 함께 저녁을 먹은 뒤 건축문화사랑 신문 학생기자 위촉식과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를 통해서 건축문화사랑 신문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고,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학생기자가 어떤 고충이 있는지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참가자 모두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토론하고 소통하는 모습이었다.

평소 건축문화사랑 신문을 과 사무실에서 일할 때 몇 번 읽어 봤고, 특히 군산대학교 문창호 교수님께서 설계 수업 시간에 건축문화사랑 신문을 가져 오셔서 학생들에게 소개해 준 기억이 있다. 그런 건축문화사랑 신문의 학생기자로 위촉된 것이 정말 내 인생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활동하면서 군산대학교와 건축문화사랑 신문 그리고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건축문화사랑 신문 워크숍”
나 스스로 변화하는 자리가 되다.

이진석 학생기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남들에게 먼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변화하고 도움을 준다면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각 대학교 학생 기자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노력하고 행동한다면 훨씬 좋은 아이디어와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광주·전남·전북에 수많은 건축사님과 편집장님, 기자님 등 건축문화사랑에 힘써주시고 봉사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자리해서 영광이었고, 함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

앞으로 학생기자 활동을 통해 전남대학교를 홍보하고, 학교 행사 등의 정보도 제공할 것이다. 변화를 통해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생기자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다짐해 본다.

2015년도 건축문화사랑 신문 신입 학생기자 명단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박지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진석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은비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이신희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최예진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대윤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강은찬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정수진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박소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빛의 도시 광주의 7월을 달구다.

2015. 7. 3 ~ 7. 14 광주유니버시아드주경기장(월드컵 경기장) 등 광주, 전남·전북, 충북 일원 경기장

유니버시아드는 전 세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종합 스포츠 대회로서 올림픽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이다. 그 대규모 국제적 행사가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약 12일간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유치가 확정된 2009년부터 약 6년 동안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마침내 개막을 앞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 ▶기간 : 2015년 7월 3일 ~ 7월 14일 (12일간)
- ▶장소 : 광주유니버시아드주경기장(월드컵 경기장) 등 광주, 전남·전북, 충북 일원 경기장
- ▶주최 : 국제대학스포츠연맹 (FISU)
- ▶주관 :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KUSB), 2015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GUOC)

- ▶종 목 : 21개 (정식 13 / 선택 8)
- 정식 종목 : 기계체조/농구/다이빙/리듬체조/배구/수구/수영/유도/육상/축구/탁구/테니스/펜싱
- 선택 종목 : 골프/배드민턴/사격/야구/양궁/조정/태권도/핸드볼
- ▶규 모 : 170개국 2만여 명 (선수단 및 운영진 포함)

슬로건



'Light up Tomorrow'는 빛고을이라는 지명에서 유래된 도시의 정체성을 살려 21세기 하이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한 광주 이미지와 전세계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으로 빛나는 대회 특성을 결합한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빛과 유니버시아드를 상징하는 미래의 의미를 조합하여 화려하고도 훌륭한 대회에 대한 기대감과 젊음·도전정신을 집약하여 대회와 대회의 가치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영문 슬로건인 'Light up Tomorrow'는 대회를 통해 세계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광주광역시의 의지와 대회가 갖는 가치를 표현하였고, 이 대회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문 슬로건인 '창조의 빛, 미래의 빛'은 행복한 창조도시를 표방해온 광주광역시가 창의적인 대회 운영으로 유니버시아드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세계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엠블럼



빛의 날개(Wings of light)
- 5대양 6대주의 날개에 열정, 꿈, 화합 신희 비상
빛의 도시 광주와 무한 발전의 '비상'을 기본 컨셉으로 스포츠 대회의 역동성과 세계인의 화합을 '빛의날개'로 표현하였습니다. 유니버시아드의 상징인 'U'형상을 내포하고 있다. 우측 5개의 날개와 좌측 6개의 날개는 각각 5대양(Blue) 6대주(Red)를 상징하고 있으며, 빛의 겹침은 유니버시아드를 통한 전세계 젊은이들의 화합과 우의를 의미한다. 빛의 발산은 빛의 도시 광주가 유니버시아드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의 도약과 비상을 상징하며, 날개의 펼쳐짐은 스포츠를 통한 젊은이들의 이상과 승리 염원을 내포한다.

미스코트



누리비(Nuribi)
- 세계 곳곳에 창조의 희망 뿌리는 빛의 천사
'누리비'는 세상을 뜻하는 우리말 '누리'와 날다의 '비(飛)'를 결합한 조어로,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빛의 전령사. 광주유니버시아드의 비전인 EPIC(친환경, 평화, IT, 문화)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존재로서 창조의 날개를 활짝 펴고 광주의 빛을 전세계에 전하라는 뜻이 담겨있다.

성공개최염원 기고문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정 명 철

**“광주건축사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열정, 꿈, 화합”의 장을 설계하다.**

2009년 5월 벨기에 브뤼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에서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지로 '광주'를 선언한 그 때, 나의 애달은 가슴 한쪽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 흐르는 것이 광주 유치 확정으로 인한 '기쁨'과 '환희'보다는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건축사라는 전문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일거리', '또다른 책임감'이라는 확신의 그 무엇이었다.

드디어 오는 7월 3일, 전세계 미래를 이끌어갈 170여 개국 2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우리 광주시를 방문하여 약 12일간 먹고, 자며 뜨거운 열정과 화합을 이루어낼 예정이다.

우리 시는 저비용 고효율 경제대회를 목표로 약 6년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그들이 한데 모여 어울릴 마당과 머물 장소를 마련해 왔다.

이와 관련해 건축(시설) 관계 비용 지출을 크게 절감했는데, 경기장과 훈련장 총 69개소 중 경기장 3개소(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양궁장)만을 신축하고, 나머지는 기존 시설을 사용하여 당초 건축 관계 예산 4683억 원 중 약 1천억 원 넘게 절감하기도 했다.

앞으로 소요될 조직위원회 운영 및 대회 기획, 경기 운영 및 지원 관리, 선수촌 및 경기장 시설 운영, 방송 및 통신, 개폐회식 등 문화행사, 홍보 및 마케팅에 소요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운영비가 총 3488억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개폐회식 간소화 등을 통해 운영비용 또한 크게 절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U대회 개최로 발생할 경제적 직접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 3조 7천억 원, 부가가치 1조 5000억 원, 고용 3만 3000명으로 예상했으며, 이중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할 경제적 직접효과는 생산 1조 9000억 원, 부가가치 9000억 원, 고용 2만 명으로 추산했다.

특히 대회 종료 후 새로운 건축물들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동 등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금전적인 효과보다 향후 미래 이 지역을 비롯한 대한민국 체육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자산이자 지역 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한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며, 건설업, 제조업 등에 비해 부가가치가 더 높은 중요한 산업이다.

이를 위해 전문직업인인 우리 건축사들은 그동안 광주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U대회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와 여러 업무들에 협조하며 경기시설물들에 대한 점검, 보수, 유지 등 관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광주건축사회에서는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자체적으로 서포터즈 모임을 공고하여 다수의 건축사들과 건축 관련 기술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지원하도록 했으며, 대회 흥행을 위한 입장권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광주·전남 전문가단체들, 기관 단체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두 팔 걷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들은 우리 눈앞에 확연한 결과물로 표현될 것이다.

광주시민 모두, 그리고 광주지역 건축사들 모두 '열정, 꿈, 화합'이 넘실대는 7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2015 광주건축사회 건축사실무교육 계획 공지]

건축사법 제30조의2, 영 제30조 규정에 의거 광주건축사회 2015년도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교육 신청 기간에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월	일시	종류	과목	강사	장소	교육시간	교육비
6월	30일(화) 14:00~18:00	전문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정명철 건축사 (광주)	5층 대강당	4시간	60,000원
			Passive 설계디자인기법	신재영 교수 (울산대)			
7월	28일(화) 14:00~16:00	전문	건축공사 감리실무	조병섭 건축사 (서울)	5층 대강당	2시간	30,000원

- 교육신청기간
해당 교육일 3주 전부터 신청가능
- 출석인정
①매 과목 교육 시작 후 14분까지 입실 완료하여
야 교육이 인정되며 15분 부터는 지각 처리
되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환불되지 않음)
②매 과목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평가서
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석체크
①건축사등록원 등록카드 또는 QR코드(교육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발급)를 이용하여
교육장 입구에 비치된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하여
출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 수강신청 절차
①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 접속
②협회 ID / PW 로 로그인
③교육과정안내, 실무교육 선택 ⇒ "건축사회선택"
에서 "광주건축사회"
(선택 ⇒ 교육일자 확인 후 각 과목명 클릭)
※광주건축사회 선택 후 "신청중" 클릭 후 선택 신청도 가능
■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장 운영 현황

[총 경기장 69개소, 기존시설 95.6% 활용]

- 경기장 37개소, 훈련장 32개소 (광주 45개소, 전남.북 및 충북 10개 시군 24개소)
- 경기장 4개소(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양궁장, 테니스장) 신축으로 개보수 위주의 경제적 친환경 대회로 개최

대회기간 중 운영될 경기시설은 총 69개소이며 각 종목별 경기장 인근에 선수들이 충분한 준비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장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장은 환경문제 및 시설의 사후 활용 문제를 감안하여 신규 건설을 최소화하고 기존시설을 종목별 국제 연맹 기준에 맞게 개보수 했다.

새로운 시설물들은 대회 종료 후 대학스포츠 활동 및 시민들의 체육활동, 여가 활동 등의 행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지역 시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욕구를 충족시켜 지역사회 내 건강한 삶의 문화를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및 국가 체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대학내 체육 시설을 가능한 많이 활용함으로써 대학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대회에 대한 관심과 스포츠 참여 욕구를 증대시키는 물론 대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대회 유산으로 남길 것이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신축경기장소개



남부대 국제수영장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64-1 의 2필지 (남부대학교 내)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연구개발특구 / 상대정화구역 /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 165,658㎡ (계획대지면적 : 50,000㎡) / 건축면적 : 11,992.90㎡ / 연면적 : 19,398.68㎡
 건 폐 율 : 7.24% / 용적률 : 9.74% /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 구조 : RC + 포스트텐션 + 철골트러스조
 주요 마감 : T24 로이복층유리, 다중플러카보네이트, 알루미늄패널, 알루미늄쉬트, 화강석 / 주차대수 : 486대
 관 램 석 : U대회 시 : 3,293석(고정석), 100석(가변석) / 세계선수권대회용 증축 시 : 15,369석
 주요 시설 : 경기시설, 선수시설, 운영시설, 보도시설, 상환실, 기계/전기/발전기실 등
 POOL 현황 : 경영풀(50m×26m×3m), 다이빙풀(33m×25m×5m), 연습풀(50m×21m×2m), 워업풀(25m×10m×1.2m)
 총사업비 : 66,223백만원(국비 : 19,867, 시비 : 46,357)
 시공/감리 : 남양건설(주) 외 4개사 / (주)밸코엔지니어링 외 3개사
 설 계 : (주)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유아이에이건축사사무소(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105-1 일원(광주여자대학교 부지내)
 대지면적 : 55,000.00㎡(부설 주차장 등 환경조성 부지)
 건축면적 : 10,522.48㎡
 연 면 적 : 27,723.50㎡
 건 폐 율 : 19.13%
 용 적 륭 : 50.41%
 규 모 :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 27,731.74㎡, 관람석 8,337
 총사업비 : 80,377백만원(국비 : 22,158, 시비 : 58,220)
 시공/감리 : 진흥기업(주) 외 4개사 / (주)유탑엔지니어링 외 3개사
 설 계 :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림 건축사



광주국제양궁장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35번지 일원 / 대지면적 : 45,109.0㎡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 용도 : 운동시설(양궁장)
 건축면적 : 1,985.31㎡ / 연면적 : 2,970.75㎡ / 건폐율 : 4.40% / 용적률 : 6.59%
 규 모 : 지상1층 ~ 지상3층, 연면적 : 2,970㎡, 관람석 1,085석 / 최고높이 : 15.8m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지붕)
 주차대수 : 법정▶100㎡당 1대 = 2,970.75 ÷ 100 = 30대 / 계획▶139대(장애인용 5대, 대형 9대 포함)
 총사업비 : 23,683백만원(국비 : 7,105, 시비 : 16,578)
 시공/감리 : (주)해광건설 외 4개사 / 극동엔지니어링 외 2개사
 설 계 :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등



진월 국제테니스장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123번지 일원 / 대지면적 : 36,587.00㎡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면적 : 3,626.50㎡ / 연면적 : 21,688.50㎡ / 건폐율 : 9.91% / 용적률 : 7.85%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 27,731.74㎡, 관람석 8,337
 주차대수 : 법적 39대 계획주차는 437대(장애인 주차 16대 포함)
 총사업비 : 37,661백만원(국비 : 11,299, 시비 : 26,362)
 시공/감리 : 삼보건설(주) 외 2개사 / (주)유탑엔지니어링 외 2개사
 설 계 :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등

대학생기자들이 본 남부대학교 국제 수영장,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2015년 7월 3일~ 7월 14일(12일간) 광주에서 세계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이 담긴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펼쳐진다.

본 행사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세계 170개국으로부터 약 2만여명(선수단 및 운영진 포함)이 참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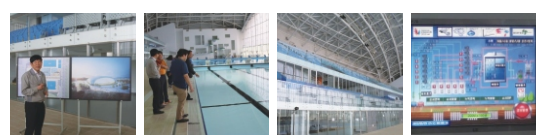
따라서 지난 5월 29일 본 학생기자단은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과정에 흥미를 갖고 광주에 위치한 경기장 답사를 다녀왔다.

많은 경기장 중 수영과 다이빙이 진행될 남부대학교 국제 수영장과 리듬체조, 기계체조가 진행될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을 다녀왔다.

먼저 남부대 국제 수영장은 U대회 규모에 맞춰 다가오는 수심조절장치, 대형 스테인리스 수조 등 최첨단 시설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의 20%를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로 충족하는 친환경건축물이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실내의 온습도 유지와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U대회 종료 후에는 2019년 세

계선수권대회 경기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따라서 구조적으로도 상황에 따른 경기장 증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체 트러스중 3개의 중심 트러스를 제외하 나머지는 철거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남부대 국제수영장

다음으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은 시설 규모에 맞는 주차장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다. 본 체육관은 국내 3위 안에 들 정도로 큰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이다. 디자인 적으로 곡면 지붕을 표현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먼저 풍력에 대항하기위해 슬라이딩 공법을 활용하였으며 내수성이 우수한 아연도강판의 거밀 접기 방식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획당시 디자인 되었던 매끄러운 곡면을 담아내지 못한 점은 아쉬

움으로 남는다.

체육관은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지하에 엄청난 규모의 연습실이 있다. 체육관 특성상 높은 천장과 무지주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의 크기라든지 기둥의 두께가 상당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큰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분주한 모습이었다. 경기장의 모습을 살펴보니 구조적인 면이나 시설부분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었고, 관계자들 또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그러나 다녀온 두 곳 모두 설계당시 디자인을 구현해내는데에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건설기술의 향상으로 설계디자인이 바르게 구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글) 전주대학교 박소라 학생기자 / 사진) 전북대학교 정수진 학생기자

6_ 설계경기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에 충족하고 주변 입지 조건과 건물의 외형, 색상 등이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친환경적이며, 예술성과 창의성, 기능성이 담긴 우수한 학교 설계(안)를 선정하여 공공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 발주처: 전라북도교육청
- 설계공모방식: 제한공개공모
- 심사위원 명단: 동재욱(공주대학교), 하현정(금오공과대학교), 정금호(전남대학교), 안성섭(주)우도 건축사사무소, 이영숙(시오 건축사사무소), 손수희((주)수가디자인 건축사사무소), 김진성(대전광역시교육청), 김중환(충청남도교육청), 권영길(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적상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설계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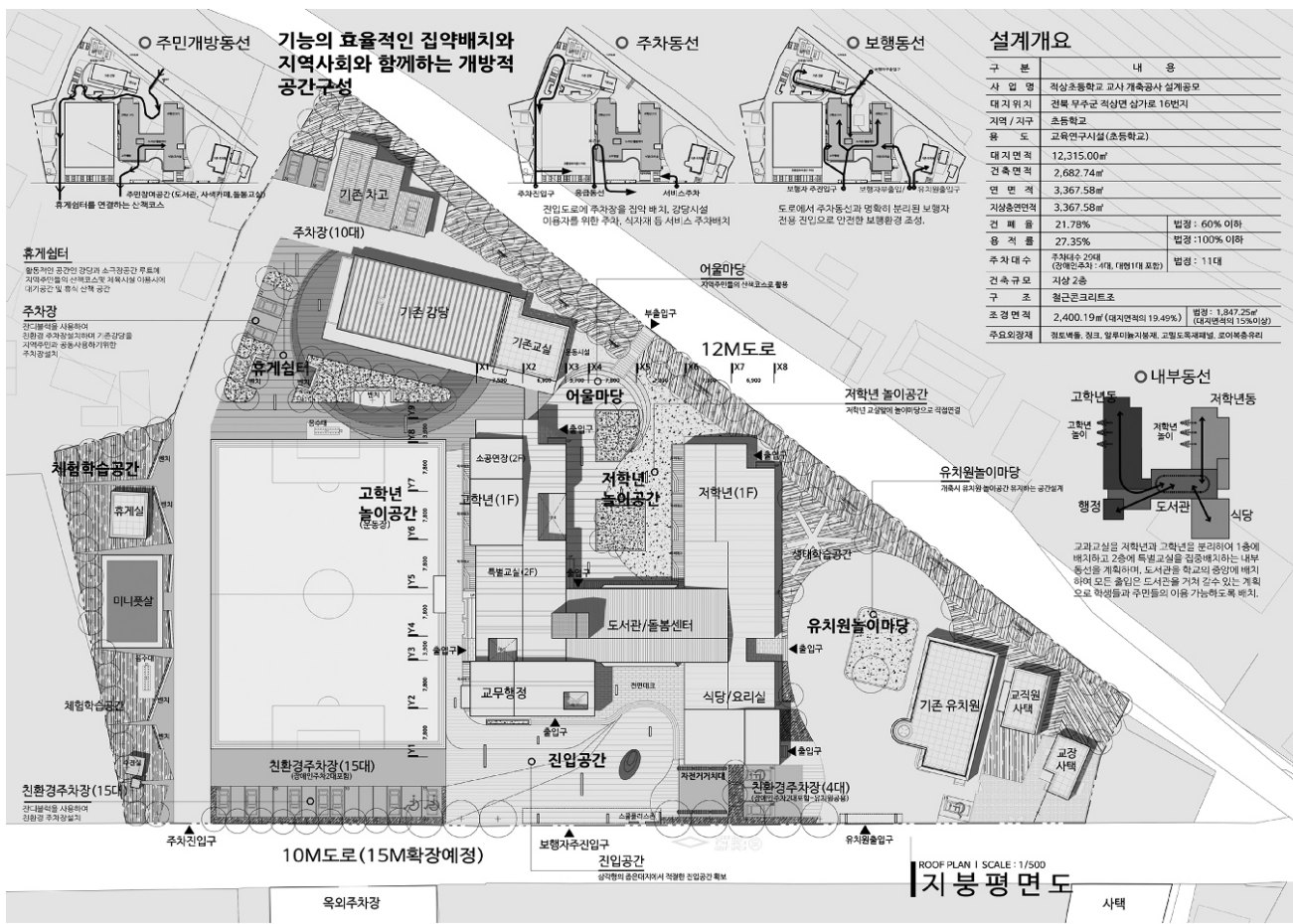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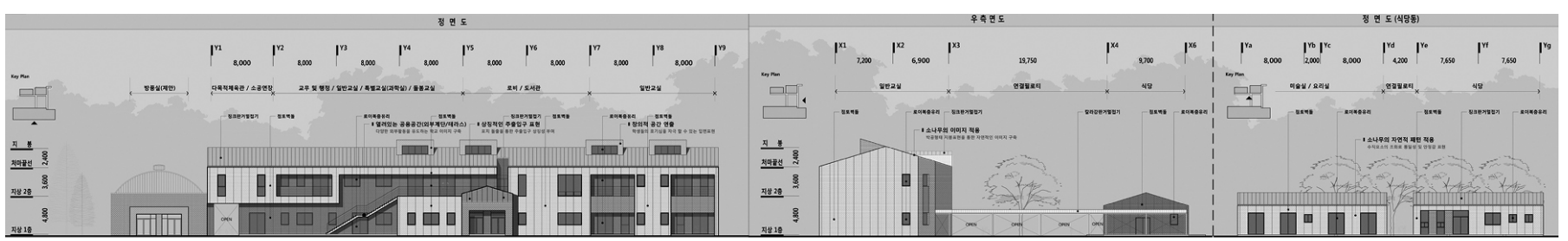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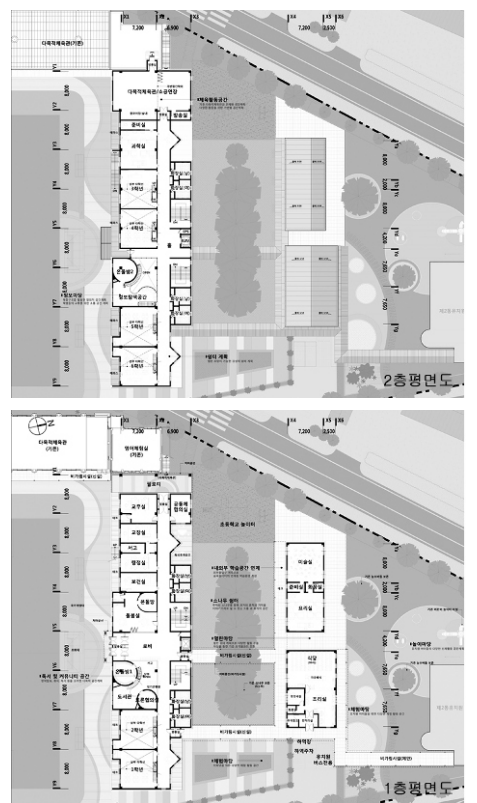


당선작: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우수작: 건축사사무소 예일
 가작: 디오 건축사사무소
 장려: 예손 건축사사무소

김남중 건축사
 최형두 건축사
 유영록 건축사(자묘미제출)
 유성환 건축사(자묘미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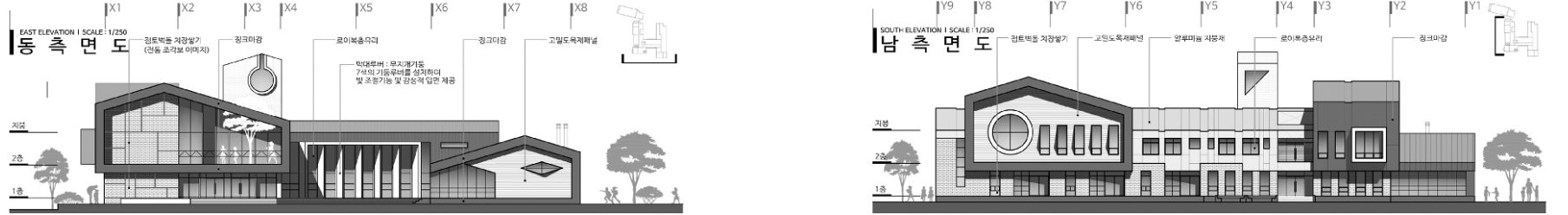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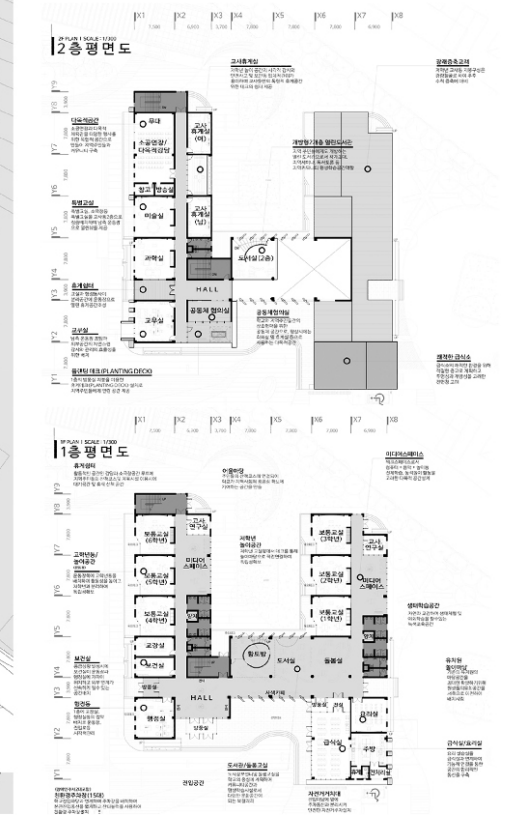
당선작

김남중 건축사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우수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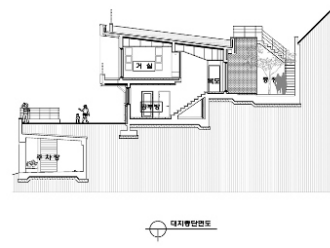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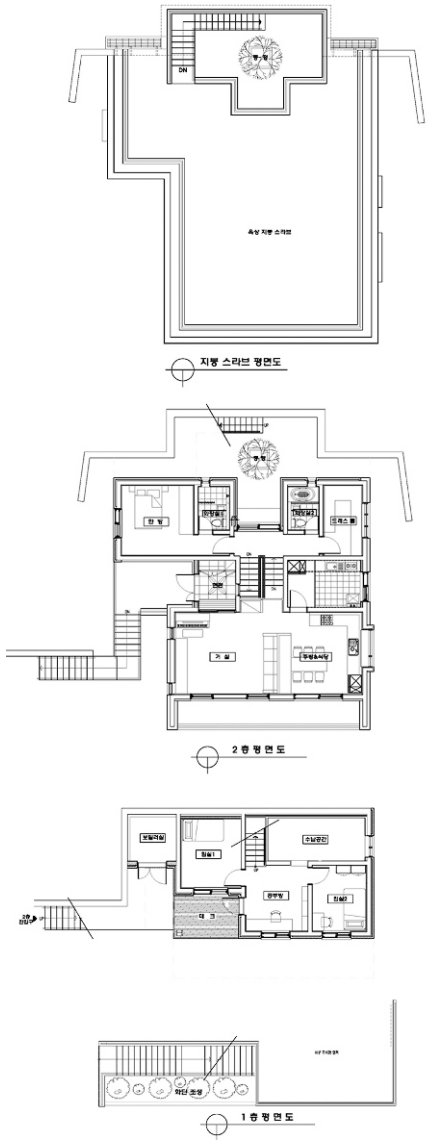
최형두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예일



순천시는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과 건축사를 선정, 시상하여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도시미관을 증진 시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4년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대상 작품 모집을 공고하였다. 19개의 작품이 응모하여 주거부분에 우수작과 가작, 비주거부분에는 가작을 선정했다.

- 주거부분
 - 우수작 : 화수목마을 J씨주택 정재성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프로세스)
 - 가작 : 금치리 할아버지네 노영자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LIM)
- 비주거부분
 - 우수작 : 미선정
 - 가작 : 왕지동 근린생활시설 손경식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아키펠)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주거부분 우수작

정재성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프로세스

화수목마을 J씨주택

위 치 : 순천시 상사면 마륜리 461-35
 대 지 면 적 : 825㎡
 용 도 : 단독주택
 건 축 면 적 : 154.29㎡
 연 면 적 : 163.65㎡
 건 폐 율 : 18.67 %
 용 적 륜 : 19.81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재 : 시멘트벽돌, 에코틸, 적삼목, THK24 로이복층유리



왕지동 근린생활시설

위 치 : 순천시 상사면 마륜리 461-35
 건 축 면 적 : 178.83㎡
 연 면 적 : 430.56㎡
 구 모 : 지상 3층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재 : THK30송판무늬콘크리트, THK0.7다그징크롬, THK22로이복층유리



비주거부분 가작

손경식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아키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안길전 건축사와의 만남

“광주의 건축문화 발전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합회로 이끌어 나갈 것”



광주(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안길전 건축사



▲ 지난 5월 28일 광주 남구 서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편집위원들과 인터뷰

안길전 건축사가 설계한 대표작품들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은광교회



나주혁신도시 엘가릴타워

지난 4월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이하 광주건단연)는 제2회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안길전 건축사를 제7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안길전 건축사는 올해 3월까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직을 수행하며 약 1년간 광주건단연 회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었다. 다음은 지난 5월 28일 광주 남구 서동에 위치한 안길전 회장의 사무실에서 편집위원들과 나눈 대화이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2004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회 3개 단체가 광주 건축문화 발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이다.

광주건단연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광주도시공사 사장이사자 제6대 회장을 역임하신 조용준 교수님의 뒤를 이어 임기 2년의 제7대 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선배님들의 광주건축도시문화발전의 공에 누(累)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광주건단연을 이끌어 가실 방향에 대해...

광주건단연은 약 10여년의 운영기간동안 광주의 건축문화와 도시재생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주건축·도시문화제와 도시재생투어, 건축문화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시민들이 건축과 도시 발전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에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광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저의 임기 중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할 사업으로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광주의 건축문화를 소개할 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사님들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광주건단연을 이루는 3개 단체 회원들께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현재 광주건단연은 특정 단체 중심보다는 소속 단체 모두가 연합하여 한 목소리로 미래의 건축인을 꿈꾸는 후배양성과 광주의 건축문화 발전에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신중학교를 졸업한 후 광주공업고등학교 기계과나 전기과에 입학하려고 했으나 실력이 부족한 관계로 건축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건축설계보다는 목공 쪽에 관심을 가졌으나 1975년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며 건축사사무소 공간의 창단멤버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건축에 대한 운명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 후 정식적인 건축사보조원의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 10년 후인 1985년에 조선대학교 건축학과를 입학하고, 또 10년 후인 1995년에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에 진학하는 과정을 통해 예비건축사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늦깎이인 43살(1999년)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여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은 어떤것 입니까?

우리는 흔히 건축물을 우리들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그릇은 설계자가 아닌 건축주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야하는데, 간혹 설계자에 의해 그 의미가 왜곡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매번 설계에 임할 때 이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은 현재의 흔적들이 미래가 되기에 '삶의 질과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 자연을 기대어 품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건축 철학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건축사로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영향을 주신 분이 건축사사무소 공간의 김상석 건축사님 이십니다. 건축설계 실습생시절부터 약 17년간 다양한 분야의 설계와 대관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올바른 건축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김상석 건축사님의 '돈 보다는 일을 배우려는 욕심을 갖고,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자랄 수 없지만 사람은 큰 사람 밑에서 클 수 있다'는 조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광주건축사회가 이제 창립 30주년 청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배님들께서 어려운 건축시장의 환경 속에서도 지금의 우리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헌신과 양보에 희생이 있으셨고, 우리 후배님들의 많은 협력과 지원 덕에 오늘의 광주건축사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광주건축사회선후배님들은 전국 17개 시도 건축사회 어느 회보다도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후배는 선배를 잘 공경하고 예우를 갖추며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동행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후 계획 및 포부에 대해

오직 일만 생각하며 여기까지 달려 오다보니 이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작지만 큰 목표로 색소폰으로 음악 한국을 완벽히 연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저에게 지역건축사회를 넘어 전국 1만여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취재 : 박주현, 이종순 건축사기자
정리 : 객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남악신도시 영신 타운하우스



부산광역시 정관지구 A-5BL 이지더원3차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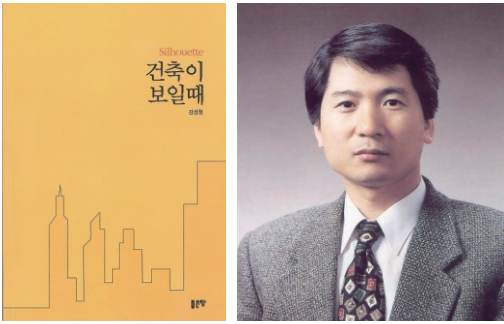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정관지구 복합상업시설 조은프라자



세종시 1-1생활권 L5블럭 이지더원아파트

광주 강성철 건축사(디자인그룹현대 건축사사무소), '건축이 보일 때' 책 펴내

- 자신이 그동안 설계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과 설계 작품 등이 담겨져 있어



자신이 설계한 작품들과 스케치 등 지금까지 건축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데 묶어 책으로 펴낸 건축사가 있어 화제다.

광주 디자인그룹현대 건축사사무소 강성철 건축사는 지난 5월 초 '건축이 보일 때(좋은땅 2015.04.30.)'라는 도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저자가 어릴 적부터 느꼈던 건축에 대한 생각과 건축사로서의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건축에 대한 자신의 철학, 건축사로서 현재의 자신의 모습 등이 담겨져 있다. 또한 책에 실린 그림과 사진들은 모두 저자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인 강성철 건축사는 경희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광주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며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 지역의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후, 고향인 광주에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광주시 문화예술상과 건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예총 편집위원과 광주대학교 겸임교수, 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한국미술협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광주폴리시민협의회, 광주폴리(3차 프로젝트) 시민공청회 개최

- 오는 6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광주폴리시민협의회(회장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천득염 교수)는 오는 6월 17일 수요일 2시부터 5시까지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광주폴리운영평가보고 및 광주폴리III 항방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광주폴리시민협의회가 주최하고 (재)광주비엔날레가 주관하며, 광주폴리 2차에 대한 운영평가 보고와 3차 폴리에 대한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참가는 광주폴리에 관심 있는 시민 및 전문가 누구나 가능하다.

먼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기훈 상임이사와의 '광주폴리 2차 운영 평가 결과 요약보고'가 진행되며,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민석 교수와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 류영국 지회장의 '광주폴리III 항방에 대한 제안' 발표가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폴리도슨트, 폴리 인근 주민, 프로그램 운영파트너, 대학생, 예술가, 도시계획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광주와 폴리, 3차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3분 스피치 및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순효상 건축사와 중국 예술가 아이 웨이웨이가 총감독으로 있었던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시작된 광주폴리 프로젝트는 2011년 1차에 이어 2013년 2차 폴리프로젝트(감독 니콜라우스 히르쉬)가 추진되었다.

광주광역시 종합건축본부 건설공사 품질시험 검사 이용 안내

- 소규모 민·관공사에 대한 151개 종목 수수료 50% 감면 등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만능재료시험기 등 80종의 시험 기구를 갖추고 토질시험 등 151종목에 대한 건설공사 품질 시험 검사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 일원에서 시행중인 소규모 민간공사(5억 원 미만 토목공사 660㎡ 미만 건축공사)는 콘크리트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온도 등 4개 항목에 대해 품질시험 수수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151개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검사 이용 방법은 사업주, 건축주가 사전 전화 및 팩스로 요청시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 종합건설본부 홈페이지(<http://gunsul.gwangju.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종합건설본부 품질시험과(Tel. 062-613-6787/Fax. 062-613-6789)로 문의하기 바란다.

새로운 제품. 더 나은 구매 방식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Autodesk Subscription 옵션이 포함된 **최신 소프트웨어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Autodesk 제품 영구 라이선스는 2016년 1월 31일 이후에는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www.autodesk.co.kr에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문의:
한국씨아이엠(주) 강민구 T. 02-772-5842 H. 010-3451-3539 E. mkkang@kcim.co.kr

AUTODESK
Value Added Distributor

DAOUDATA
(주)다우데이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디지털벨리로 81
디지털스퀘어 7층
T. 02-3410-5100
www.daoudata.co.kr

AUTODESK
Platinum Partner

한국씨아이엠(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9
서울숲 코오롱디지털타워 3차 6층
T. 02-2117-0609
www.kcim.co.kr

*적용 대상 AutoCAD LT 및 AutoCAD 제품군 Desktop Subscriptions, 일부 Autodesk 개별 제품, Autodesk Design & Creation 제품군 Desktop Subscriptions의 연간 또는 다년제 계약을 구매할 때 Autodesk 권장 소비자 가격에서 25%를 할인해 드립니다. 프로모션은 적용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의 기존 릴리스 버전이 대한 영구 라이선스를 보유한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기존의 영구 라이선스는 유지되며 Desktop Subscription은 별도의 추가 구매입니다. 전체 제품 목록, 세부 정보, 제한 사항 등은 www.autodesk.co.kr/promoofferconditionslegacy를 참조하십시오.
**다년제 Maintenance Subscriptions이 있는 AutoCAD LT 및 AutoCAD 제품군, 일부 Autodesk 개별 제품, Autodesk Design 및 Creation 제품군의 신규 영구 라이선스를 구매할 때 Autodesk SRP(권장 소비자 가격)에서 20%를 할인해 드립니다. 전체 제품 목록, 세부 정보, 제한 사항 등은 www.autodesk.co.kr/promoofferconditions를 참조하십시오.

주홍글씨

1850년에 발표된 미국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의 작품인 '주홍글씨'는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내용을 넘어 '인간을 얽매는 영원한 굴레'라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불에 달군 쇠붙이로 죄인의 몸에 형벌처럼 찍었던 '낙인'과도 비슷한 의미다. 또한 중상모략·질투·비판·험담·소문 등과는 다르게 불특정다수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즉, 한 번 새겨지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 불명예를 '주홍글씨'라 빗대어 말한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내용도 각각양색이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홍글씨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무더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증명하듯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황금만능주의에 젖은 경제인, 스캔들에 휘말린 연예인, 구설수에 오른 공무원 등이 고개를 뺏뺏하게 들고 변명을 일삼거나 여전히 도시를 활보하고 있다. 소위 사회지도층 혹은 유명한 인사들이 그런 식이다보니, 불법행위가 적발된 서민들조차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아쉬워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건축계도 예외는 아니다. 각종 인허가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현상설계 심사과정에서, 입찰과정에서, 시공과정에서, 유지관리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잡음의 상당부분이 비정상적인 절차와 비양심적인 행위에서 기인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건축계가 비리의 온상처럼 취급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또한 선량한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보다는 가해자가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불법과 편법 그리고 부도덕한 로비활동도 능력'이라는 인식이 건축계의 풍토로 자리잡아버렸다. 이처럼 건축계에서는 주홍글씨가 불명예스런 낙인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변질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주홍글씨는 결단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이는 불명예스런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더 주홍글씨는 달고 싶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거니와, 주홍글씨는 한 번 새겨지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 불명예를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이나 얼굴 혹은 이름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본인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남들의 눈엔 분명히 보인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갖은 자일수록 착각은 금물이다. 당신의 주홍글씨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갖은 권력과 힘과 돈이 무서워 차마 모르چه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 충격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당신의 주홍글씨를 자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당신의 주홍글씨를 자식에게도 물려줄 것인가?

사실, 주변을 살펴보면 주홍글씨가 새겨진 건축계 인사들이 적지 않다. 건축 문화사랑이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지만, 차마 용기가 생겨나지 않는다. 아직은 건축문화사랑이 나약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더 큰 이유는 나에게 불이익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임을 고백한다. 따라서 '무능' 혹은 '비겁'이라는 주홍글씨는 편집장에게 새겨지는 것이 마땅하다.

<편집인_서재형 건축사(archiseo@nate.com)>

건축사 만평

약육강식! 적자생존! 건축사!
아름다운 동행이 요구될때....



심 상 봉 건축사 작 (주)건축사사무소 에디터그룹

법무법인서석 |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준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광주건축사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특별시 및 타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 요청

광주건축사회가 그동안 광주 도시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손꼽아 왔던 용적률에 대해 광주광역시에 상향 요청을 하여 의견이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월 초 광주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광주 건축사회에 요청했고, 이에 광주건축사회는 법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허용범위 개정’과 ‘생산녹지 안 및 자연녹지지역 안, 생산관리지역 안,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공장 허용범위 개정’,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건폐율 완화’등이 담겨져 있다.

이의 개정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견없음’을 회신하였으며 추가 개정(안)으로 도시계획 조례 제7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해 특별시 및 타 광역시 평균 용적률 수준으로 다음과 같이 규제완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조례	개정요청(안)
제7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1 ~ 2(생략) 3.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4.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 5.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6.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7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1 ~ 2(생략) 3.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4.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제3종일반주거지역 : 280퍼센트 이하 6.준주거지역 : 44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대구, 인천, 세종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인천 세종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부산, 인천, 울산, 세종 300%)임	

이와 관련하여 법제위원회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광주 도시발전을 위해서라도 추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회장단,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토부 항의 방문

— 지난 6월 2일 방문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중단 요청

현 전국 시도 건축사회장단으로 구성된 제31대 시도 건축사회장협의회(회장 석정훈 서울시건축사회장)는 지난 6월 2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국토부 건축정책과를 방문하여 국민의 재산권 및 안전을 위협하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1,000㎡ 이상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 이외에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감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상주감리 확대로 국민부담과 비전문가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맡겨야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회장단은 “건축의 설계 및 감리 준공은 법에서 명시하는 건축사 고유영역이며 비전문가들의 참여를 허락하는 시행령이 시행되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편법이나 부실 감리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 없음’을 밝히며 “감리 대가기준, 감리업무 강화 등 후속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칙으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과 대상인 ‘연면적 1,000㎡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시사했다.

한편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안) 대한 의견 접수가 6월 3일로 끝난 가운데 전국 시도 회장단에서는 규제개혁심사 등 법안 심사과정에 명분과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인 반대여론을 개진하기로 했다.

전남 담양군 건축물 디자인 및 색상관련 협조 요구에 논란

—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규제라는 일각의 목소리 있어

전라남도 담양군에서는 지난 5월 20일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전라남도 지역 건축사회에 ‘건축물 디자인 및 색상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양군의 건축물 패션화 사업 정책에 따라 군내 산·촌측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설계에 디자인과 색상을 지정된 내용대로 반영을 하라는 것이었다.

디자인 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평스라브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붕 색상은 진그린색, 진밤색(스페니쉬 기와 사용시 제외)을 선택, 벽체는 주택에 흰색, 아이보리색을, 창고와 축사는 은회색, 은색을 선택하라는 내용이였다.

일부 건축사들은 이의 내용에 대해 “마치 건축사들이 색상이나 기능에 대해 무지한 직업인으로 여기며, 건축사들의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군의 일방적인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국가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려는 중앙정부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횡포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일부 건축사들은 지역건축사회 차원의 대응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해당 지역건축사회의 조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여성건축인들의 축제’ 제21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개최

— 지난 5월 15일과 16일 충남 부여에서 ‘백제 그 역사 속으로’ 라는 주제로 진행

전국 여성건축사들의 축제인 제21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가 지난 5월 15일과 16일 충청남도 부여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 전국 150여명의 여성건축사들이 모여 1박 2일 동안 건축물 답사와 총회를 진행했다.

첫째 날에는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해 행복도시 건설현황 및 특화방안 등을 설명 받고 국립세종도서관과 정부세종청사 옥상 등을 관람했으며 공주 송산리 고분군 답사 일정 후 롯데 리조트 연회장에서 총회와 만찬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충남 부여 백제문화단지과 수덕사, 충남도청과 내포신도시 등 답사가 이어졌으며 충남도지사와의 간담회도 가졌다.

광주건축사회, 설계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 (주)마이다스아이티와 협약체결

— 지난 5월 19일 DJ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회원사들의 업무진행에 큰 도움 될 것



광주건축사회(회장 정명철)는 지난 5월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 구조 등 설계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인 (주)마이다스아이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이 광주건축사회 회원사들의 업무진행과 사업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 체결 주요 내용으로 광주건축사회 회원사들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을 상호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각종 관련 세미나 진행 및 행사활동에 협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날 정명철 회장은 회원 및 소속 사무소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약식을 통해 회원사들의 설계 관련 업무에 대한 소비비용을 경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를 계기로 회원들이 업무진행과 다양한 분야로서의 사업확장에 지원을 줄 수 있도록 광주건축사회가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마이다스아이티는 오는 6월 25일까지 전국 19개 시·도에서 ‘마이다스 기술콘서트 2015’를 개최하고 있다.

제28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심사결과 발표

— 오는 6월 16일까지비엔날레 전시관서 전시, 건축부문 최우수작 김지우 씨 팀의 ‘Columuseum’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 20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제28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심사위원회를 열고 6개 부문의 대상을 포함, 총 10개 부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올해는 한국화, 양화(수채화), 조각, 공예, 서예(서각), 건축, 판화, 문인화, 디자인, 미디어 등 10개 부문에 총 1419점이 출품됐다.

심사결과 한국화를 비롯한 6개 부문에서 대상작품이 선정되었으나, 건축부문에서는 대상작품 선정이 제외됐다.

특히 이번 건축부문은 건축, 도시, 주거, 분야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출되어 도심주변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설계와 문화공간을 제안하는 설계안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는 심사위원회의 설명이다.

최우수작에 김지우, 김 현, 이대운 씨 팀의 ‘Columuseum’이 선정됐고 특선작에 안요섭, 나문정, 오다정 씨 팀의 ‘MIX House’ 외 4개 작품과 입선작에 임지형, 정원주, 문혜영 씨 팀의 ‘Busking Box’외 5개 작품이 선정됐다.

이번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시상식은 오는 6월 12일 오후 4시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리며 입상작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같은 장소에서 전시되고, 지역 미술계를 대표하는 추천, 초대작가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2015 국제디자인총회 오는 10월에, 광주에서 개최된다.

— 전 세계 70개국 3천여 명의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 참가, 참가등록 온라인으로 접수



세계최대규모로 진행될 2015 국제디자인총회가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이음(Design Connects)’이라는 주제로 광주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70개국 3천여 명의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 참가하는 이번 총회는 올해 초 조직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성공적인 디자인총회 개최를 위해 분야별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자인총회 프로그램은 ‘디자인과 함께하는 미래’와 ‘디자인의 미래와 디자인 인큐베이션’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를 비롯해 통합 세션, 분과 세션, 광주 도시문화 디자인 정상회의, 기업과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시회로 구성됐다. 또 단체별 총회, 개폐회식 행사, 디자인 도시 광주탐방과 문화 특별행사, 학생·교사·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열릴 예정이다.

국제적인 디자인총회인 만큼 다양한 디자인들이 전시될 것으로 보여 건축인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 등록은 유료등록으로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7월 31일까지는 조기등록 할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015 국제디자인총회 홈페이지(<http://www.2015idc.org>)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전북 건축인 한마음으로 엮어낸 '전북 건축인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 전북건축사회 주최로 지난 5월 30일 완주군 모악산공원 축구장에서...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전병갑)는 지난 5월 30일 완주군 모악산공원 축구장에서 "2015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이번 체육대회에는 전라북도청 및 시·군 소속 건축직공무원 218명, 전라북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소속 건축직공무원 83명, 전라북도 건축사회 회원 158명 등 총 459명이 참석해 건축인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소통 및 화합의 장을 가졌다.

경기종목으로는 축구, 줄다리기, 800m 계주, 단체 축구로 진행했으며 종합우승은 전라북도교육청팀이 차지했다.

전병갑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행사에 이제는 전북도내 전지역 건축사와 시군지역 건축직 공무원 모두가 참여하여 우정을 나누고 상호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축제의 마당이 되었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NEWS 광주건축사회 동정

- * 퇴회**
- 박강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한울
- * 변경(소재지)**
- 김호신 건축사 / 삼영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무등로202번길 64 (신안동)
- 봉환성 건축사 / (주)리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장동로 41, 오앤길빌딩 2층 (동명동)
- 김한일 건축사 / 신라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매월종합상가 206동 208호 (매월동)
- 전한 건축사 / 열린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죽봉대로 204-1 (운암동)
- 김철홍 건축사 / 일석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매월종합상가 206동 208호 (매월동)
- * 결혼**
- 박화수 건축사 / (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
장남 결혼 - 6월 7일 (일)
- 장정수 건축사 / (주)맥스유 종합건축사사무소
장녀 결혼 - 6월 13일 (토)
- * 부고**
- 박상군 건축사 / 락 건축사사무소
부친 별세 - 5월 17일 (일)

NEWS 광주·전남·전북 6월 지역축제

- ▶ 06. 18 (목) ~ 06. 21 (일) 법성포단오제 2015 - 전남 영광군 법성 숲쟁이 공원 및 뉴타운 일원
- ▶ 06. 19 (금) ~ 06. 21 (일) 고창 북복자와 수박축제 2015 - 전북 고창군 선운산 도립공원 일원
- ▶ 06. 20 (토) ~ 06. 21 (일) 전주단오제 2015 - 전북 전주 덕진공원 일대
- ▶ 07. 10 (금) ~ 07. 15 (수)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2015 - 전라북도 무주군일원
- ▶ 07. 24 (금) ~ 07. 28 (화) 목포항구축제 2015 - 전남 목포시 평화의 섬 삼학도 및 선창 일원
- ▶ 07. 31 (금) ~ 08. 06 (목) 정남진장흥물축제 2015 - 전남 장흥군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 건축허가관련 양식 기재란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시다.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광고 및 공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16면외전면광고 : 700,000원
- 하 단 광 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 독 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 금 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 521-0025~6 F. 062) 528-0026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명철, 박용욱, 전병갑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경수, 이성업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서재형
전담기자 박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정영범, 박신남, 강필서
편집위원 정명환,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백재봉
윤미순, 박종호, 양우현, 박주현, 이종순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실 | 명

2015 광주하계 U대회

전세계 대학생들의 축제! 광주하계 U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정

[2015. 5. 29 공고, 2015. 6. 1 시행]

1. 취지

앞으로 건축심의 시 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일부 위원 의견이 전체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없어지게 되어 건축심의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 공고)이 고시되어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4년 9월에 건축심의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이는 권고사항에 그쳤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기준화하는 것으로 14년 11월에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번에 법정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건축심에서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 부설주차장 법정대수의 120%이상 확보, 중층(다락) 설치 제한 등

○ 건축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로 건축심을 요구하는 일도 방지하였다.

○ 또한, 소수 위원 의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심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 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결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나.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제개정 절차 강화

○ 약 250개 기초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 기준 제·개정 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였다.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되도록 하였다.

다. 심의도서 간소화, 심의절차 개선 및 심의결과 공개

○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6개(배치, 평면도 등)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다.

○ 특히, 계획심의를 허가 전에 받아야 하나 구조안전심의를 작성도서(공사 착공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심의성격을 고려하여 착공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 심의 후 7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심의는 심의 후 10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하였다.

3. 기대효과

국토교통부는 동 규정 제정·고시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바닥충격을 차단 구조기준 신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19호 2015. 5. 21]

1. 제정이유

최근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웃 간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층간소음을 방지기준 마련 필요 '14. 5. 28일 개정된 「건축법」 에서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일정 용도 및 규모 건축물의 바닥은 소음방지 기준(고시)에 따르도록 층간소음 방지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적용대상 건축물의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또는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하여 적용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이 바닥충격음(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

* 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 제21조의4에 따라 지정)

○ (표준바닥구조) 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등으로 구성된 표준형 구조로서 용도·규모별로 차등 적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4,000,000원
전라북도건축사회	4,000,000원
(주)다우데이터	1,000,000원
반석기초이앤씨(주)	350,000원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이은주 이은주 세무사무소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건/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고요한 밤



어릴 적에는 밤이 무서웠다. 어딘가에서 들은 귀신 이야기나 괴담들이 그 어두움 속에서 떠올라 다녔기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밤은 매끄러운 뱀처럼 아름답지만 위험해 보였다.

반짝이는 별들은 영롱했지만 그 아래 캄캄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가 낫과는 너무 달랐던 탓이다. 텅 빈 도로는 싸늘했고 가로등의 불빛이 없는 곳에서는 상상 속 괴물들이 튀어

나왔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밤은 내 배짱을 시험하는 하나의 담력 테스트에 불과했을 것이다.

지금의 집으로 이사한 후의 밤 역시 캄캄하고 머릿속의 무서움을 자석마냥 끄집어낸다. 그러나 그만큼 밤은 내게 익숙해졌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침대에 눕는 게 무서웠던 아이는 그 정적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알게 되었으며, 밤을 지루하게 만들었던 졸음은 상상력과 집중력이 응집된 열정이 되어 폭발했다.

밤은 이제 내게 가장 편안하고 조용한 친구이다. 누군 만나고 웃고 떠들고 시끄러운 곳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나를 꽤나 힘들게 하지만 조용함 속에서 나 홀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나를 그대로 내보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게다가 밤은 누구든지 침묵으로 인정하는 개인 작업실이 아니던가.

나는 앞에서 이야기 했던 대로 밤에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무런 간섭 없이 나 홀로 키보드를 두드려 짧은 글을 쓴다던가, 난데없이 물감과 붓을 들고 와서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린다던가 하는 것 말이다.

밤은 이런 창작의 활동들을 촉진시켜주고 활력을 주는 비타민 같은 존재다. 가끔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 잠 잘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그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며 걱정하는 시선들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나처럼 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그 의미가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 알 것이다. 밤은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루 성과를 되돌아보는 일기이기도 하다. 그 까맣고 넓은 도화지에 내 역사를 새기면서 머리 밑 베개는 언제나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는다. 그 조그마한 자유보다 달콤한 게 또 있을까.

밤은 현실을 직시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도 고요한 저 뒤편의 밤은 내일 아침을 위한 기다림일 뿐이다. 그렇게 보면 밤보다는 아침이 더 두려울지 모른다. 밤새 켜진 노트북은 아침에 식은 채 덮여 있고 노트 위에 놓인 닳아진 연필은 더 이상 까만 가루를 날리지 않는다. 아마 더 이상 밤이 무섭지 않음은 내가 자랐다는 증거이고 나를 투영하는 거울일 것이다. 나는 오늘도 고요한 밤에 글을 쓴다.

사랑

사랑하여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로 보아라

지구의 한 축에서

우주로 쏘는 눈길

별빛처럼 아름다우리라

삶의 날마다 축제

찬란한 불꽃놀이의 찰나

마음은 긴 꿈을 피우리라

이름모를 야생화 마알간 사랑

대지의 축복일진대

한 사람을 안고가는 그대

해성처럼 꼬리를 남긴다 하여도

질푸른 영겁의 항해

나날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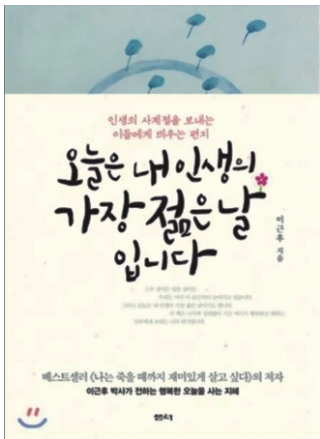
그대 바라보는 꽃송어리 향

책 소개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2편

샘터출판사, 지은이 이근후

박자윤 실장
온나라 D&I



- 다시 / 온전한 / 나를 / 찾고자 / 하는 / 그대에게
가장 뜨거웠던 시기를 보내고 삶의 세 번째 계절 가을을 맞은 당신은 이제 조금씩 차분하게 식어가는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마음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며 삶을 반성하고 참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온전한 나로서 살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당신에게 띄우는 편지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배움 : 세상 구경 한번 해보세요!
젊은이 : 늘 새롭고자 하는 사람

- 행복하게 / 떠날 / 준비를 / 하는 / 그대에게
인생의 사계절이 끝나가는 겨울에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의 자유는 평온을 줍니다.

나 역시 노년이라는 마지막 계절을 보내며 느끼는 소회를 당신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께 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나의 편지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소통 : 자신의 울타리 밖으로 나와 만나는 일
유언 : 나의 일생을 담은 말

당신은 지금 어느 계절에 계시는지요?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충분히 느끼시길....

※ (1)편은 지난해(66호) 독자광장에 게재되었습니다.

공사의 첫 단추, 기초공사 반석기초이앤씨에서 끼우세요!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곳이 없습니다
공사의 첫 단추인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축물의 결과도 부실해집니다
공사의 첫 단추를 반석기초이앤씨에서 끼우는
시공사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